

#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 주민의견 묻는다

### 장성군, 백암산 표기 관련 이달말 여론조사 결과 환경부 전달 민선 4기때도 전북도·정읍시 반발로 무산...주민 설득이 관건

장성군이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묻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백암산을 함께 표기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다음주 시작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명칭 변경에 나선 행정을 설명하고 찬반 입장 등 여론

을 청취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마무리해 환경부에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명칭 변경은 환경부 차관을 위 원장으로 둔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면 환경부 현장 조사와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친다.

군은 지난 달 사회단체 활동가·대학교수·법률가·종교인 등이 참여한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장성군은 앞서 민선 4기인 2007년에도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전북도와 정읍시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내장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이름을 백암사무소로 바꾸는 성과만 거뒀다.

군은 이번에는 내장산을 백암산보다 먼저 표기하는 방안으로 전북을 설득하고, 가장 상생위원회를 꾸려 정읍·순창·장성이 국립공원이라는 공동의 자연유산으로 합

께 변형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07년 논란을 반복하면 백암산과 내장산으로 국립공원을 분리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장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 82km<sup>2</sup>로 장성과 정읍, 순창에 걸쳐있다. 백암산은 행정구역으로 장성에 속하며 내장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인 35km<sup>2</sup>에 달한다. 백제 무왕 33년(632년)에 창건한 호남불교의 요람으로 기암괴석과 단풍으로 이름난 백양사가 백암산에 자리해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베트남 환보군 협약 모습.

## 장성군, 명예 읍·면장 11명 위촉 '눈길'

### 대화·소통으로 '열린군정' 구현...역점시책 공감대 확산

장성군이 11개 읍면에서 명예 읍면장 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구현하고 역점시책들에 대한 공감대를 지역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를 추진했다.

지난 8일 이들에 대한 위촉식이 가졌다. 이번엔 발탁된 명예 읍면장 11명은 전직 교수와 언론인, 기업 CEO 등 각 분야의 명망 있는 향우들로 구성됐다.

장성 출신인 이들은 대학교수, 언론인, 전문경영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8일 하루 동안 11개 읍·면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했다.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농업시설과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 건의 청취 등 일정을 소화했다.

앞으로 명예 읍면장들은 군의 비전과 주요 시책, 축제, 문화행사 등을 군민과 전국 각지의 향우들에게 홍보해 군정 운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명예 읍면장 제도가 장성군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정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유두석 장성군수와 장성군 명예 읍·면장들이 지난 7일 명예 읍·면장 위촉식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담양군-인도네시아·베트남 자치단체 협약 딸기 재배기술 보급·문화교류 등 상호 협력

담양군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치단체와 딸기 재배기술 보급 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인도네시아 가룟군과 베트남 환보군을 잇따라 방문해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와 담양 딸기 재배기술 보급과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가룟군은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에 위치한 지역으로, 해발 500m의 고산지역이다.

인구는 300만 명이다. 이 중 농업인구는 70%이며, 주로 자카르타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있다.

환보군은 베트남 북부 쑤안성(성)에 위치한 인구 120만 명의 도시로, 해안과 인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담양군은 협약에 따라 두 지역과 실무협의를 운영해 딸기 신품종 재배 시험과 보급, 다양한 농업기술과 문화교류 등 상호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에서 자체 개발한 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 담양 딸기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 손주 양육 조부모 30명 대상 화순군 '손주사랑교실' 운영

화순군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손주 양육하거나 앞으로 양육할 계획이 있는 조부모 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할미랑 할비랑 손주사랑교실'을 운영한다.

군은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조부모에게 육아 정보를 제공해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세대 간 다른 육아 정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부모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교실은 16일부터 시작해 매주 1회 1시간씩, 총 세 차례 운영한다. 육아교실은 화순군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육아교실은 영유아들의 질병과 증상, 대응 방법, 응급처치, 놀이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 화순군, 미래 청년정책 이끌 '제2기 청년협의체' 출범

### 주부·농업인 등 33명 위촉

화순군의 미래 청년정책을 이끄는 청년협의체 활동이 시작됐다.

화순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기 청년협의체 위촉식(사진)을 열고 지역 청년 3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2기 화순군 청년협의체 위원은 지역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과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대학생, 주부, 청년창업가, 지역인, 청년활동가,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했다.

청년협의체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한다. 청년협의체는 ▲일자리 ▲인력양성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청년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화순군의 청년 정책 실행계획과 시책 등에 관해 협의·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청년협의체 위원들은 청년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공감하고 실행성 있는 정책발굴을 통해 '소통과 협력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청년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정책을 발굴·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청년협의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반영해 실행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 활동을 시작한 제1기 화순군 청년협의체는 '화순군 5개년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화순 청년발전 시행계획, 청년협의체 워크숍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 담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국비 등 154억 투입 구도심 창업·주거·문화 혁신거점공간 조성

담양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담양읍 담주리 일원 구도심에 '문화생태로 새로운 청년을 디자인하다'의 슬로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했으며 그동안 다수의 컨설팅과 평가위원들의 현장실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국토교통부 검증을 통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구도심 14만4400㎡를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 집수리사업과 마을 공영

주차장 조성, 문화예술 거점 조성, 생태문화광장 조성, 어울림센터 조성, 해동문화예술촌과 연계한 사업 등 모두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군은 주민들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참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담양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